

아티스틱 수영, 결선 좌절



17일 광주 서구 영주체육관 아티스틱수영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아티스틱 수영 팀 프리 예선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이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멋진 연기 선보였으나 아쉽게도 77.1667점으로 프리 예선 17위 결선 진출 문턱 12위와 5.4점 차 1위는 '디펜딩챔피언' 러시아

아티스틱 수영 팀 프리 예선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이 아쉽게도 결선 진출이 좌절됐다. 17일 광주 서구 영주체육관 아티스틱 경기장에서 선수권대회 아티스틱 수영 팀 프리 예선이 펼쳐졌다.

이날 출전 27개팀 중 12번째로 연기를 펼친 한국팀(백서연·김준희·김지혜·구예모·이가빈·이재현·이리영·이유진)은 '어둠과 빛'을 주제로 독창적인 아크로바틱 연기를 선보였다.

한국팀은 수행(Ex) 23.2점·예술 인상(AI) 30.6667점·난이도(D) 23.3점, 총점 77.1667점으로 17위를 기록했다.

세계적 수준과는 상당한 격차를 실감했다. 결선 진출 최하위팀인 벨라루스의 총점 82.5667점과는 5.4점 차이였다.

예선 1위는 우승 후보 러시아가 차지했다. 러시아는 완전한 동시성과 창의적이면서 흔들림 없는 기술을 펼쳐 수행(Ex) 29.3점·예술 인상(AI) 39.0667점·난이도(D) 29.4점, 총점 97.7667점을 받았다.

러시아는 지난 2017년 부다페스트 선수권대회에서도 이 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다렌딩챔피언으로서 이번 대회 팀 프리 종목 금메달에 도전한다.

도전이 성공하면 러시아는 듀엣·솔로·팀 테크니컬, 솔로 프리에 이어 아티스틱 수영 종목 5관왕에 오른다.

중국은 총점 95.7667점을 받아 예선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3위는 우크라이나(93.9667점), 4위는 일본(92.6667점)이 차지했다.

아티스틱 수영 팀 프리 결선은 오는 19일 오후 7시 영주종합체육관 아티스틱수영 경기장에서 열린다. /뉴시스

지역 체육 발전 · 스포츠산업 연계

군산시, 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 개최

군산시가 지역 체육의 체계적인 발전전략 및 스포츠산업의 연계발전방안을 마련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군산시장애인체육관 다목적강당에서 복지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시의원, 군산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언론인, 외부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기간은 올해 11월까지로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의 체육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군산시 체육의 체계적인 발전전략 및 스포츠산업의 연계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

획이다.

이날 보고회는 관내 대학교 체육관련 전문가 및 체육회 관계자들이 많은 조언과 의견을 개진했으며, 향후 용역사가 내실있는 과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양천 복지관광국장은 "스포츠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는 획기적인 발전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춘 체육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한국펜싱 저력을 보여주겠다"

호원대 정한길, 하계U대회 '금메달' ... 전국체전 선전 기대

"큰 무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치러진 2019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전북 펜싱의 기대주 호원대 정한길(2년)은 귀국하자마자 훈련장으로 향했다.

금메달 획득이라는 기쁨도 잠시, 부족한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한길은 이 대회에서 오상욱, 정재승, 최민서와 함께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 출전해 독일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사브르 개인전 16강전에서는 동료선수이자 세계랭킹 2위인 오상욱에게 15대 7로 패하며 대회를 마감했다.

정한길은 남보다 조금 늦은 중학교 3학년때 학교 펜싱부 감독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선수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부모님이 반대를 했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반대도 무릅쓰고 정한길은 펜싱의 길로 들어섰고, 마침내 국가대표로 국



제대회에 출전해 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호원대 이정복 감독은 "정한길은 전복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펜싱 선수로 거듭날 자격이 충분하다"며 "성실하고, 순발력과 집중력이 뛰어나다. 또 단신이지만 순간 스피드가 뛰어나 작은 키의 단점을 극복한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또 "정한길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으며, 상대 선수의 동작을 예측해서 공격을 할 줄 아는 지능적인 선수"라고 밝혔다.

정한길은 "난 아직 젊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면 상욱 형도 이기고 한국펜싱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짜릿함이 최고'라는 정한길은 진정 펜싱 자체를 즐기는 선수로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선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직원 배드민턴팀, 전국대회 직장부 '준우승'

원광대학교(총장 박명수) 직원들로 구성된 배드민턴팀이 최근 수원 매탄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건강관리협회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해 직장부 남자복식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일반부 및 직장부로 나눠 열린 전국 배드민턴대회는 직장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엄격한 신분 검사를 거쳐 연령 제한 없이 전국 기업체 및 산업체, 관공서 직원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55개 단체팀이 출전해 실력을 겨뤘다.

대회 개최 소식을 늦게 접한 원광대는 평소 배드민턴을 즐기는 직원들로 복식 3개 팀을 급하게 구성해 6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첫 전국대회에서 전승으로 결승에 올라 준우승까지 차지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원광대 팀은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입학자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 홍보



를 위해 경기장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예선 리그부터 본선 토너먼트를 거쳐 결승에 진출하기까지 1000여 명이 넘는 참가선수와 관중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문수, 김동문, 하태권, 손승모, 이재진, 정재성 등 올림픽 배드민턴 메달리스트를 배출하고, 현재 서승재 선수를 비롯해 4명의 배드민턴 국가대표를 보유한 원광대는 최근 전국 교수배드민턴대회에서 단전전 우승을 차지하는 등 학생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과 함께 교직원 배드민턴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익산=장영림 기자

부드러운 소주 - 처음처럼

군산시 인재육성장학기금

3억 3천만 원 기탁

언제나 처음처럼!
언제나 전북사랑!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